

5월 황금연휴 향기로운 여행 ‘보성다향대축제’로

내달 2~6일, 다양한 프로그램 즐기며 가족 특별한 추억 만들어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초록빛 물결. 향긋한 차 내음이 바람을 타고 퍼지는 이곳, 보성에서 2025년에도 잊지 못할 특별한 축제가 펼쳐진다.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는 ‘보성에서 피어나는 천년 차(茶)의 약속’을 주제로 오직 보성에서만 누릴 수 있는 80여 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보성으로 떠나야 할 이유를, 지금 만나보자.

▲찾아일을 따고, 뒤고, 마시는, 오감으로 즐기는 차문화

보성다향대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차’라는 주제를 전시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직접 보고, 맛보고, 체험하며 오감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방문객들은 초록빛 차밭에서 직접 찾아일을 따고, 전통 방식으로 찾아일을 뒤고, 마시며, 차 한 잔에 담긴 시간과 정성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또한, 끝없이 펼쳐진 초록 차밭을 무대로 여유로운 티타임을 즐기는 프로그램인 ‘오후의 차밭(그랜드 티파티)’은 올해 500명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젊은 세대를 위한 K-Tea 혁신, 세계로 뻗어가는 보성 차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젊은 세대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한층 더 진화했다. K-티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K-티 문화 체험관, 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말차 카페일 체험과 로스팅 차 체험, 전국 바리스타와 음료 개발자들이 참가하는 보성티마스터컵은 보성차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여기에, 말레이시아 최대 축제인 카마탄 페스티벌과의 공식 교류 협약을 체결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 차(茶) 시장을 향한 힘찬 도약도 준비했다.

또한, 지역 농가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 간 B2B(기업 간 거래) 매

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성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를 위한 체험형 축제

5월 황금연휴에 열리는 만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을 적극 환영한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보성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에어바운스 놀이터, 비눗방울 놀이터, 차밭 보물찾기, 꼬마 기차 운행, 키티링 만들기, 녹차 비누 만들기 등의 체험 부스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가족과 연인들은 초록 차밭을 배경으로 감성 스냅사진 촬영을 즐길 수 있으며, 카라반과 함께하는 보성애향물길차 감성 캠핑 프로그램은 요즘 트렌드에 꼭 맞는 힐링을 선물한다.

▲초록빛 물결에 문화와 감동을 더하다

축제 기간 동안 보성군 전역은 하나의 거대한 축제장이 된다. 5월 2



일, 보성군민의 날과 함께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MBC 가요베스트 대형 콘서트가 하늘과 무대를 수놓으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메타세쿼이아 길을 달리는 보성녹차마라톤대회(5.3), 만개한 철쭉이 장관을 이루는 일립산철쭉문화행사(5.3 ~ 5.5), 남도의 소리를 담은 서편제보성소리축제(5.4 ~ 5.6), 온 가족을 위한 보성어린이날 행사(5.5)가 이어지며, 5월 내내 축제의 도시로 변모한다.

/보성=장국모 기자

곡성, 어르신들 인생이야기 책으로 담다

80세 이상 장수 어르신 22명, 삶·경험 기록 책자 발간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곡성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 책자 발간 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귀중한 삶의 궤적을 기록하고, 이를 널리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고 29일 전했다.

이번 책자 발간에는 곡성군 각 읍면에서 선정된 80세 이상의 장수 어르신 22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의 삶과 경험을 진솔하게 풀어내는 구술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된 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개인의 인생사를 넘어, 우리 지역의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물이자, 후손들에게 지역의 정체성과 뿌리를 알리

는 소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책 속에 전통 농업의 변화, 가족과 공동체 문화, 지역 행사와 생활 풍속 등 우리 고장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은 이야기가 실려,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지역의 역사이며 지혜의 보고입니다. 이 책자가 어르신들께는 삶의 활력을, 젊은 세대에게는 배움과 감동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제작한 책자를 관내 공공서, 도서관, 경로당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책 속의 주인공들을 초청하여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곡성=홍경백 기자

순천-여수 농축협,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



순천시시는 NF농협 순천시지부와 여수시지부 등 순천-여수 농·축협 임직원 12명이 순천시청을 방문해 시장실에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순천농협과 여수농협은 각 300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각 3천만 원(1인당 10만 원 기준)씩 고향사랑 기부금을 상호 기탁하기로 했다.

/순천=조순희 기자

백희순 여수시 지부장은 “23년부터 계속해 올해도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하게 돼 뜻깊다”고 전했다며, 주철호 순천시 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농협의 공익적 역할을 실현하고 서로의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동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상호 기탁은 지역 간 상생 모델로 큰 의미가 있다”며 “순천과 여수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 어린이날 맞아 ‘목공체험행사’ 개최

내달 4~6일, 진행

곡성군이 군민과 관광객의 목재에 대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목공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목공 체험 행사에는 어린이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목각인형 가방고리 만들기·나무놀이 체험·원목거울·원목도마 만들기 등 생활 속 다양한 목공문화와 체험의 기회가 제공된다. 목공체험에 참가하여 SNS인증을 마친 참여자들에게는 다육이를 무료로 제공한다.

곡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목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숲과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는 “기차마을 대탐험! Hi Fun Balloon Festival” 특별 이벤트가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이벤트 기간 섬진강기차마을 전체가 마법 같은 풍선의 나라로 변신한다. 기차마을 곳곳이 다양한 캐릭터와 각양각색의 풍선 장식으로 꾸며져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곡성=홍경백 기자

광양교육청, 관내 고교 진학 지원 협의회

고교학점제 이해·지역 내 고교 진학 활성화 방안 공유

광양교육지원청은 중등중학교 교원배움터에서 관내 중학교·고등학교 고입 업무 담당자 및 진로상담교사를 대상으로 ‘관내 고교 진학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 대학입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고 연계를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하고, 지역 내 고교 진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양시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 김상모 장학관이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진로·진학 지도 방안’을 주제로 강의의를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운영 체계와 2028 대학입시 개편 방향이 소개되었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 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광양=조순희 기자

광양, 전남도·국회 찾아 ‘광양발전 정책과제’ 반영 건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광양항 친수공간 조성 등 8개 사업 지원 요청

광양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해 전남도를 방문해 전남도지사에게 정책과제를 건의한 데 이어 국회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 관계자 등에게 광양발전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양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5건의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과제(▲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 지정 ▲국립첨단 전략산업 지

원센터 건립 ▲광양항 친수공간 조성 ▲국립 광양해양박물관 건립 ▲청년특화구역(젊음의 광장) 조성 지원)을 발굴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또한 광양만권 산업단지 활성화와 영·호남 상생 발전을 위해 ▲광양항 울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남해고속도로 선형 직선화 사업 ▲남도2대교 건설사업 추가 지원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광양=조순희 기자

순천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연내 착공 목표 순항

보상률 65% 달성… 단계별 선분양 등 안정적 사업 추진

순천시가 추진 중인 연향들도시개발사업이 연내 착공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2028년까지 연향동과 해룡면 대안리 일원 488,459㎡(약 14만 8천 평)을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호텔·리조트를 비롯한 숙박시설과 공동주택, 주

민편의상가시설 등을 도입해 순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월 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이후 곧바로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하여 1차 협의 보상 결과 65%를 완료했다. 또한 선분양 전략 수립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사업 안정성을

구례군의회, 한전 구례지사 폐지 반대 건의안 채택

순천지사로 통폐합 시도 중단 등 요구

한전 “지사의 통·폐합이 아니다” 강조



구례군의회가 지난 28일 한국전력공사의 구례지사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면 한전은 지사 통폐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례군의회에 따르면 28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 폐지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한국전력 공사 구례지사 통폐합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한국전력은 의회 및 구례군

민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구례지사 폐지 및 순천지사로의 통합 중단 ▲소도시 한전지사 통폐합 중단 ▲전력 정의 원칙에 따른 전력 요금 체계 개편 ▲차기 정부 차원의 공공성 강화 및 투자 확대 중심의 한전 경영 개선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장길선 의장은 “한전 경영 적자의

본질적 문제를 의면한 채 지역을 희생양으로 삼는 구조 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례군민과 함께 구례지사 지키기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지사 통폐합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사업소 조직 효율화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대국민 전력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업소 간 업무를 조정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다.

조직 효율화 이후에도 현재 지사는 그대로 유지되며, 고객이 방문해 처리하는 민원 접수 등 고객 서비스 업무와 고장 출동 등 현장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현재 지사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한전 관계자는 “사업소 조직 효율화는 서무 등 단순·반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력망 설계, 전력 설비 보강, 안전 계획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사 통폐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순천, 자연차 공무원 대상

비전·경험 공유 멘토링 시간

순천시는 청년센터에서 자연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의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는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업무 팁을 공유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일잘러의 업무일지’ 교육과정에 참여 중인 직원 40여 명이 참석해 공직생활의 고민을 자유롭게 나누고, 순천시장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잘러의 업무일지는 자연차 직원의 업무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순천시 특화 교육 과정이다.

이번 멘토링에서 노 시장은 공직생활 중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슬럼프 극복 방법, 효과적인 업무 처리 전략 등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전했다. 이어 “공직자의 창의와 혁신이 순천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열쇠”라며 변화와 성장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자연차 공무원들은 “시장님의 진솔한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며 “방향을 잡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1인당 60만 원’ 지급 시작

광양시는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남도 및 전남 각 시군이 ▲농어촌이 보유한 공익적 가치의 유지·증진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0년에 도입한 제도다.

광양시는 지난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 8,200여 명을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와 두고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며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다.

지급액은 1인당 60만 원이며, 광양사랑상품권 카드(25만 원권 2매)와 온누리상품권(1만 원권 10매)으로 나눠 지급된다. 수당은 지난 28일부터 마을별 일정에 따라 배부 장소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장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광양사랑상품권은 정책발행용 카드형 상품권으로 카드 단말기를 갖춘 재래시장, 마트, 식당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